그대는 자비보살

(사)다나 대표 탄경 스님 · 고담선원 주지 혜민 스님

“중생 구제해 성불…소외이웃의 지장보살 되겠습니다”

김가령 기자 gugoose66@hyunbul.com



(사)다나 대표 탄경 스님(사진 오른쪽)과 고담선원 주지 혜민 스님(사진 왼쪽)은 ‘다나 밥차’ 봉사자로 함께한 지 3년째다. 스님들은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배식봉사에 앞장섰다.

(사)다나 종로 우정공원 노숙인 배식봉사
혜민 스님 3년째 봉사 참여하며 자비행
지난해 12월엔 방한용품 1천만원 지원도

혜민 스님 “남을 돕는 게 나를 돕는 것”
고담선원 신도들도 동참하며 ‘자비 연대’
일당 모아 밥차에 기부하는 노숙인 ‘감동’
탄경 스님 “나누는 행복이 전염되길 기원”



탄경 스님은 나눔물품을 손수 옮기며 다나 밥차 배식봉사를 진두지휘했다.



혜민 스님은 노숙인들에 ‘다나 밥차 나눔봉투’를 전하며 허리 숙여 인사했다.

“중생이 있는 세상 곳곳에 빠짐없이 나아가시어 구원의 손길 멈추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지장님 본받아 오늘은 내가 지장이 되리니….”

저녁 어스름이 내린 서울 종로 조계사 우정공원 앞. 매서운 찬바람 속 사람들의 나직한 음성이 울린다. 따듯한 밥 냄새까지 피어오르는 여기는 ‘다나 밥차’ 배식봉사 현장.

노숙인과 독거노인을 위해 매주 한 번, 한 끼 식사를 나누는 이 자리에서 봉사자들은 시작 전 〈지장경〉을 독송한다.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을 본받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심을 되새기기 위해서다.

(사)다나(다함께 나누는 세상)를 이끄는 탄경 스님과 고담선원 주지 혜민 스님도 〈지장경〉을 읊으며 자비희사의 뜻에 함께 했다.

2024년의 마지막 날, 영하를 기록한 추운 날씨임에도 10여 명의 봉사자가 조계사 앞 다나 밥차에서 식사 마련에 분주했다. 탄경 스님은 무거운 물동이와 물품 상자를 직접 옮겨가며 다나 밥차 배식 준비를 진두지휘했다. 스님은 연말을 맞아 평소보다 많이 모인 후원 물품들을 뿌듯하게 바라봤다.

“평소에는 밥과 찌개, 간식 정도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갑진년 연말에는 전국 곳곳에서 과일, 빵 등을 보시해주셔서 식사와 후원 물품 등 10가지를 연말 겸 새해 선물로 나눌 수 있게 돼 다행이라 생각해요.”

선물에는 겨울 방한용품도 포함돼 있는데, 이는 혜민 스님이 직접 준비했다. 혜민 스님은 지난해 12월 17일 다나에 취약계층 방한용품 구입지원금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봉사 현장 한 켠을 빼곡히 채운 방한용품들을 본 혜민 스님은 “노숙인 분들의 따듯한 겨울나기를 기원하며 후원금을 전달했다”며 “나의 후원이 원하는 곳에 지원되는 걸 볼 때마다 자비나눔의 원력이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곧바로 혜민 스님은 두 팔 걷어붙이고 봉사활동에 동참했다. 스님과 봉사자들은 일사분란하게 200인분의 밥과 찌개를 나눠 담을 봉투를 준비하고 빠진 건 없는 지 수차례 점검했다. 혜민 스님은 이렇게 만들어진 ‘다나 밥차 나눔봉투’를 노숙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하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듯한 밥 드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허리 숙여 인사했다.

다나 밥차 나눔봉투를 받은 노숙인들은 혜민 스님에게 합장하며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다나 밥차 배식봉사는 오후 6시에 시작해 저녁 7시를 조금 넘겨 모두 마무리 됐다.

자비희사 원력의 인연

탄경 스님은 혜민 스님이 처음 다나 밥차 봉사에 참여하겠다고 찾아왔을 때 깜짝 놀랐다. “갑자기 왜?” 방송에 자주 등장하며 부처님 법을 설파하는 모습으로 익숙한 혜민 스님이 길에서 하는 고생스러운 배식 봉사를 잘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다. 여러 걱정이 앞섰지만 탄경 스님은 혜민 스님에게 선뜻 노란색 다나 봉사자 조끼를 내주었다.

“사실 1~2달만 지나면 ‘스님 저 못 하겠습니다’ 하실 줄 알고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다나 밥차가 야외 봉사다보니 날씨 영향도 많이 받고 또 배식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매번 온화하지만은 않거든요. 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는 마음이 감사해서 받아들였는데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3년째 봉사자로 나서주고 계십니다. 고담선원 신도 분들도 함께 동참해 줘 더욱 즐거운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혜민 스님의 자비나눔 원력은 다나 밥차 이전부터 이어져왔다. 종교인으로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스님은 이웃종교계와 함께 쪽방촌과 서울역 노숙인들을 위한 나눔 활동에 동참했다. 봉사활동이 손에 익을 무렵, 비슷한 활동을 하는 단체 소식을 접했다. 그곳이 ‘다나’임을 알게 된 혜민 스님은 수소문해 탄경 스님의 다나 밥차를 찾았다. 스님은 탄경 스님이 가진 자비나눔의 원력과 원칙을 듣고 감화돼 다나 밥차 봉사자로 나섰다.

“탄경 스님은 누군가 물품이나 금전을 기부하면 나중을 위해 비축하거나 남겨두는 것 하나 없이 곧장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십니다. 그것이 기부자가 바라는 것이고 원활한 봉사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자비나눔’을 위해 두 발 벗고 나서는 스님께 미력이나마 보태고자 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3년여 간 다나 밥차 배식봉사에 참여한 혜민 스님을 보고 탄경 스님은 그 끈기와 인내심에 감동했다. 야외봉사인 다나 밥차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여름엔 찜통 속에서, 겨울엔 냉골 안에서 일해야 했다. 그런데도 세 번의 겨울을 맞이하는 동안 혜민 스님은 다나 밥차 봉사자에서 떠나지 않은 것이다. 탄경 스님은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초심을 이어가는 혜민 스님을 보고 이런 분이라면 대중에게 마음공부를 가르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상찬했다.

봉사활동 3년차인 혜민 스님은 다나 밥차 현장에서 일종의 ‘연대감’을 느꼈다. 어떤 음식을 나눌지 고민할 때, 음식을 만들고 나눌 때 등등.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하지 않은 순간이 없다. 혼자 했다면 힘에 부쳐 금방 포기했을 일들임에도 함께 했기에 더욱 즐겁게 할 수 있었다. 혜민 스님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법당에서 다같이 기도할 때 신심이 더욱 커지는 것처럼, 봉사할 때도 함께해야 자비심이 더욱 커지는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고난 속 자비나눔의 씨앗

다나 밥차 배식봉사에서 스님들이 겪는 어려운 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다른 무료급식소에서 만났던 노숙인들이 다나 밥차 배식 현장에서 다시 만나 목소리 높여 싸우거나, 이미 배식을 받고는 더 달라고 다른 손을 내미는 이가 있기도 하다. 이럴 때마다 탄경 스님이 신장(神將)처럼 나서 저지한다.

탄경 스님은 “혼란에는 강경하게 대해야 좋은 의도로 마련된 자리의 뜻이 퇴색되지 않고, 다시는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많은 분들이 만족할만한 환경을 만들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처음부터 단호하게 말썽의 고리를 끊어낸다”고 설명했다.

원활한 다나 밥차 운영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지만 밥 한 끼 먹으려고 찾아온 분들을 쫓아내는 게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이 탄경 스님의 솔직한 심정이다.

이런 고난들이 있음에도 스님들이 다나 밥차 배식 봉사를 이어가는 이유는 부처님 가르침에 있다. 탄경 스님은 “다나 밥차 자체를 부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온다”며 “부처님은 길 위에서 온갖 어려움을 마주하시면서도 천 가지, 만 가지 가르침을 전하셨는데 고작 순간순간이 어렵다고 나눔 활동을 멈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혜민 스님은 또한 봉사를 ‘수행’ 그 자체로 여긴다. 스님은 “수행에 고난이 있는 것처럼 봉사활동에서도 당연히 고난이 있다고 여겨 극복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료배식을 받았던 이들이 자발적으로 나누며 회향하는 모습은 스님들이 자비나눔을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다.

일용직 노동 후 얻은 일당의 일부를 “다나 밥차에 기부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부터 목욕탕을 철거하고 나온 고철을 옮기고 받은 일당 25만원 중 5만원을 스님에게 전달하며 “제가 스님 밥 얻어먹었으니 저도 한 턱 내야죠”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스님들은 이런 나눔의 마음이 있었기에 다나 밥차가 지속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알게 모르게 얻은 자비나눔이 마음에 자리잡고 있다가 나눔의 원력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자비나눔의 씨앗이 마음 속에 싹을 틔워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행복이 많은 분들에 전염되길 바랍니다.”

남을 구하고 나를 구하는 자비나눔

혜민 스님은 다나 밥차 봉사자로 활동하며 ‘자비나눔’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 스스로 자비나눔 공덕을 쌓을 수 있던 데는 노숙인, 독거노인들의 무료 배식 동참이 바탕이 됐다.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공덕을 쌓을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저 분들을 내가 도와야지’라는 생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결국 ‘저 분들이 나를 돕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웃종교계에서 노숙인, 나눔 받는 분들을 두고 ‘천사님’이라고 하던 게 이제야 이해가 가기 시작했죠. 제게는 노숙인 분들이 보살님이고 부처님입니다.”

‘단 한 명의 중생이라도 깨달음을 이루지 아니하면 나는 성불하지 않길 원한다’고 서원한 지장보살처럼 혜민 스님은 이 땅에 단 한명의 어려운 이웃이 없길 발원하며 올해도 봉사에 진력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스님들은 올해 불자들 모두가 “남을 도우며 나를 돕는다”는 자비나눔의 힘을 경험하는 한해가 되길 기원했다. 탄경 스님은 “나누는 것이야말로 나를 위한 것이므로 자비나눔을 ‘삶 그 자체’로 여겨 세상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라”라고 당부하며 “서로에게 관세음보살이 되어 준다면 작게는 가정부터 넓게는 한국사회가 불국토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혜민 스님은 “봉사는 동체대비(同體大悲), 연민지심(憐愍之心)을 갖고 남을 돕는 행위로 여기서 나도 모르게 자비심이 자라나게 된다”며 “부처님 진리를 깨닫는 지혜의 수행에 나눔을 실천하는 자비를 겸해 지혜와 자비 양 날개를 가진 불자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더 큰 자비나눔으로 향하는 다나 밥차

조계사 우정공원 앞의 명실상부한 ‘자비나눔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다나 밥차는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지금까지 다나 밥차는 사정이 어려운 노숙인,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 배식을 해오던 곳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주머니가 가벼운 이들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다나 식당’으로 변모하는 것이 다나 밥차의 최종 목표. 종로 인근 상가 1층에 자리를 얻어 365일 24시간 문을 열고 청년, 직장인들까지 폭을 넓혀 따듯한 밥을 나누는 서원을 세웠다.

더불어 안국역과 종로 지역 의료진과 협업한 무료 의료 시술·서비스 차량 운영도 목표로 한다. 사회 인프라와 거리가 먼 노숙인, 독거노인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를 위해 사부대중의 많은 호응을 기다리는 중이다.

“처음에는 아무 기반 없이 시작한 다나가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후원자를 300여 명 둔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2025년을 다나의 새로운 도약의 해로 여기고 국내외의 더욱 많은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자 다짐합니다.”

– 탄경 스님

“나눔으로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음에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60세가 되기 전까지 10억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서원한만큼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활동으로 다나의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혜민 스님